

## 게르만어 순수동사

김희자(순천향대)

### 1. 서론

순수동사 *verba pura*는 게르만어 강변화 7급동사 중의 일부이다. 이 동사들은 게르만조어 *Urgermanisch*(<sup>1)</sup>)에서 장모음으로 끝나는 홀음절의 어근을 가진 동사이다. \**knēan* ‘erkennen’, \**mēan* ‘mähen’, \**blōan* ‘blühen’, \**mōan* ‘quälen’. 즉 어근모음이 ē 또는 ō며, 열린음절의 어근을 가진 동사들이다.<sup>2)</sup> 순수동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순수동사 *verba impura*를 대비시킬 수 있는데 이들의 어근모음은 순수동사에서와 같은 장모음의 ē나 ō지만 그 뒤에 자음이 따라나와 닫힌음절의 어근을 가진 동사를 일컫는다. \**lētān* ‘lassen’, \**hwōpan* ‘sich rühmen’.

강변화동사 중에서 가장 많은 체계 변화를 겪은 것이 7급(중복법)동사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Weitaus die stärkste Umgestaltungen hat die 7. (urspr. reduplizierte) Reihe mitgemacht.”(Mottausch, 1964: 52)

이러한 강변화 7급동사 중에서도 주변영역 *Peripheriebereich*에 속하는 순수

- 
- 1) 밤메스베르거 Bammesberger는 다음과 같이 게르만조어 *Urgermanisch*와 공통게르만어 *Gemeingermanisch*의 개념을 구분한다. 게르만개별언어들로부터 역방향으로 재구한 것이 공통게르만어고 인구어에서 순차적으로 재구한 것이 게르만조어다. Bammesberger: 1986, 9.
  - 2) 게르만조어의 \**gnō*-와 *bhlē*-의 장음 ē 와 ō의 유래를 후두음가설 *Laryngalhypothese*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인구어 어근에 후두음이 포함되어 있다가 그 후두음이 탈락하면서 그 탈락을 보상하기 위해 앞 모음이 장음화했다는 것이다. idg. \**gn-eə3* > \**gnō*, idg. \**bhl-eə1* > \**bhlē*-. 인구어 후두음에는 ə1, ə2, ə3의 세 종류가 있었으며 이것들이 앞 모음의 음색을 결정지었는데 ə1은 ē로, ə2는 ā로, ə3는 ō로 결정지었다는 것이다. 인구어의 ō와 ā는 게르만어에서 ō로 통합된다. Seebold, *VEW*, 34f: Matzel, *Zu den verba pura des Germanischen*, S. 13 참조.

## 2. 독어학 제9집

동사들은 더 심한 변화를 겪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의 언어 형태는 예외라는 표지를 붙인 채 항상 변화에 노출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언어 변화의 한 유형인 유추 Analogie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Wenn eine sprachliche Einheit in Anlehnung an bereits Bestehendes verändert wird, sprechen wir von Analogie. Die Analogie scheint demnach auf die Ausbreitung allgemeiner Bildungsprinzipien hinzuwirken bzw. auf die Eliminierung von Ausnahmen. (Theobald, 1992: 266)

하나의 언어단위가 현존하는 형태에 의거하여 변화할 때 그것을 유추라 부르며 유추가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단어형성원리를 확대 적용하려 하거나 예외형태를 제거하려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변화 7급동사는 고대고지독일어에서 중법복을 버리고 모음교체동사로 복귀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순수동사는 모두 약변화동사로 이동한다.<sup>3)</sup> 인구어에서 유래한 제1차동사 Primärverben인 강변화에 머물지 못하고 게르만어 시기에 출현한 파생동사인 제2차동사 Sekundärverben로 이동한 것이다.

본 논문은 순수동사가 고대고지독일어에서 강변화동사에 남지 못하고 심한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형태상의 특징을 게르만어 강변화 동사 체계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또한 약변화로의 이동 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특히 약변화1급동사의 특징인 -j-가 현재형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약변화동사로 이동하는가? 또한 고대고지독일어 시대에 여타의 7급동사의 과거형에 사용된  $\bar{e}^2$ , eo를 사용하여 강변화동사에 재편될 수는 없었는가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 2. 게르만어 강변화동사

의미 변별 기능을 가진 음소들이 형태론적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

3) 순수동사가 약변화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는 Braune/Mitzka, Ahd. Gr. §356, §359 Anm. 3 und 4; Moczygamba, S. 314; Baesecke, §137을 참조.

상호 교체하여 형태적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음운론적 교체는 게르만어 강변화동사의 시제 표현에 가장 잘 나타난다: *geben-gab*.

게르만어 강변화동사 시제 표현에 사용된 모음교체 Ablaut는 질적 *qualitativ* 교체와 양적 *quantitativ* 교체가 있다. 완전단계 *Vollstufe*를 기준으로 할 때 확장단계 *Dehnstufe*와 소멸단계 *Schwundstufe*는 양적 모음교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1완전단계와 제2완전단계, 제1확장단계와 제2확장단계는 질적 모음교체에 해당한다. 인구어 모음교체열 (Ablaut)reihe에 동원되는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인구어 모음교체열

Schwundstufe	Vollstufe <sup>1</sup>	Vollstufe <sup>2</sup>	Dehnstufe <sup>1</sup>	Dehnstufe <sup>2</sup>
Null	e	o	ē	ō
Null	a	o	ā	ō
ə	ē	ō	ê	ô
ə	ā	ō	â	ô

제1완전단계에 단모음을 사용하는 e-교체열과 a-교체열은 다같이 제2완전단계에 o를 사용한다. 즉 e도 o와 질적 교체를 하고 a도 o와 질적 교체를 한다. 완전단계 e와 o는 한 모라 Mora를 확장하여 두 모라를 가지는 각각의 확장단계 ē와 ō를 구성한다. 완전단계에서 한 모라를 축소하여 소멸단계 영 Null을 구성한다.

제1완전단계에 장모음을 사용하는 ē-와 ā-교체열은 공통으로 제2완전단계에 ō를 사용한다. 확장단계는 3 모라의 ê와 ā 그리고 ô이다. 이들 장음 교체열의 또 다른 특성은 한 모라를 축소한 소멸단계가 e와 a가 아니고 모두 ə인 점이다.

게르만어로 넘어 오면서 모음체계상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체열에 동원되는 각 단계의 모음 종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idg.* a와 o가 *germ.* a로, *idg.* ā와 ō가 *germ.* ō로 통합하고 *idg.* ə는 *germ.* a가 된다. 또한 게르만어에는 3모라법칙 *drei-Moren-Gesetz*이 적용되어 세 모라의 ê, ô, â는 존립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단순화 된 게르만어의 모음교체열을 보면 다음과 같다.

&lt;표 2&gt; 게르만어 모음교체열

Schwundstufe	Vollstufe <sup>1</sup>	Vollstufe <sup>2</sup>	Dehnstufe <sup>1</sup>	Dehnstufe <sup>2</sup>
Null	e	a	ē	ō
Null	a	a	ō	ō
a	ē	ō	><	><
a	ō	ō	><	><

e-교체열이 가장 다양한 단계의 모음을 거느리고 있다. a-교체열은 제1완전단계와 제2완전단계, 제1확장단계와 제2확장단계가 통합하여 그 역량이 반감하였다. 장음 계열의 ē-와 ō-교체열의 소멸단계는 모두 a로 상호간에 변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e-교체열의 제2완전단계, a-교체열의 제1완전단계와 같기 때문에 변별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 결과 ē-교체열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두개의 완전단계만 남는다. 그러나 제2완전단계의 ō는 a-교체열의 확장단계와 그리고 ō-교체열의 제1완전단계와 같기 때문에 이 또한 변별력을 상실한다. 결국 제1완전단계 하나만 남는다고 보아야 한다.<sup>4)</sup> ō-교체열은 제1완전단계와 제2완전단계가 통합되어 결과적으로 제1완전단계만 남은 셈이다. 여기에서 각 교체열의 세를 비교하면 e-교체열 > a-교체열 > ē/ō-교체열 순이다. 즉 e-교체열이 주교체열 Primär-Ablautreihe로, a-교체열이 부교체열 Sekundär-Ablautreihe로 기능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ē/ō-교체열은 주변부에 속하는 예외적 모음교체열에 속한다.

게르만어 강변화동사는 모음교체를 그 시제표현에 체계적으로 적용한다. 게르만어 강변화동사 시제표현에 나타난 모음교체의 원형을 잘 나타내 주는 시기는 쇠뿔 Coetsem이 말하는 소위 e-a 시기이다.<sup>5)</sup>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제1차 변모음(e>i)이 일어나지 않았고 idg. a와 o가 germ. a로, idg. ā와 ō가 germ. ō로 통합된 시기이다(Coetsem, 1970: 390). 이 시기에 동사의 제1기본형(부정형

4) 따라서 ē-교체열의 제2완전단계 ō는 독자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중복법과 함께 사용될 뿐이다. got. lēta - laīlōt.

5) 이 시기는 그 연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개별 게르만어가 발달되기 이전으로 원게르만어 Urgermanisch가 끝나고 공통게르만어 Gemeingermanisch로 넘어가는 이월시기에 해당한다. Coetsem: 1970, 390. Bammesberger: 1986, 12.

과 현재어간)의 어간을 이루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3> 게르만어 강변화동사 제1기본형의 어간

	e-Reihe	a-Reihe
I	e+i+K (got. beidan)	a+i+K (got. haitan)
II	e+u+K (got. -biudan)	a+u+K (got. aukon)
III	e+Liq./Nas.+K (got. bindan)	a+Liq./Nas.+K (got. haldan)
.....		
IV	e+Liq./Nas. (got. niman)	a+Liq./Nas. (got. faran)
V	e+K (got. giban)	a+K. (got. slahan) <sup>6)</sup>

위 표는 주교체열인 e-교체열과 부교체열인 a-교체열이 각각 5종류의 하위 부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간의 구성을 보면 어간모음으로 e와 a가 사용된다. 그러나 I-IV에는 어간모음 뒤에 i, u, 유음 Liquida/ 비음 Nasal이 따른다. 어근모음 뒤에 따라 나오는 이러한 음들은 인구어에서는 모음이나 자음이 아닌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는 반모음 성격의 공명음 Resonanz이다. III과 IV는 다같이 유음/비음을 동반하지만 III은 유음/비음 뒤에 자음이 따르고 IV는 자음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V의 어간은 공명음을 동반하지 않고 어간모음 다음에 자음만 온다. 이와 같이 어간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모음 교체의 가능성을 5배로 확대하였다.

e-교체열의 다섯 하위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은 제1기본형(현재 및 부정형)과 제2기본형(단수과거)에 제1완전단계와 제2완전단계를 사용하는, 즉 e-a 모음교체를 사용하는 동사들이다. 이들을 전통적으로 강변화 1급-5급 동사로 부른다. 이들의 4기본형<sup>7)</sup>에 사용된 모음은 다음과 같다<sup>8)</sup>:

6) Coetsem: 1970, 389의 도표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여 인용.

7) 4기본형은 앞에서 언급한 제1기본형(현재 및 부정형), 제2기본형(단수과거) 외에 제3기본형(복수과거)과 제4기본형(과거분사)가 있다.

8) 제2/3/4기본형에도 제1기본형에서와 같이 어간환경인 (K), (Liq./Nas. + K), (liq./Nas.)이 따라 나오지만 지면 절약상 표기를 생략하였다.

6 독어학 제9집

<표 4> 강변화1급-5급동사 4기본형의 어간모음

	1.	2.	3.	4.
I	e+i+K	a + i	i	i
II	e+u+K	a + u	u	u
III	e+Liq./Nas.+K	a	u	u <sup>9)</sup>
IV	e+Liq./Nas.	a	ē	u
V	e+K	a	ē	e

강변화동사의 시제표현에 사용되는 모음교체 단계는 “단수과거는 강세가 어근 음절에 오기 때문에 제2완전단계의 o를, 양수 Dual와 복수과거는 강세가 어미에 오기 때문에 소멸단계를 사용한다.”<sup>10)</sup>

“Das Singular hat betonte, o-stufige Wurzelsilbe; Dual und Plural haben Endbetonung und daher schwundstüfige Wurzelsilbe, ...”(Streitberg, 1974: 323)

이것은 원게르만어 시기에도 여전히 인구어의 자유형 강세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원칙에 충실하게 부합되는 것은 위 도표에서 I, II, III의 세 하위부류이다. 이들은 제2기본형(단수과거)에 제2완전단계를 사용하고 제3기본형(복수과거)에 소멸단계를 사용한다. 또한 과거분사 용도에 해당하는 제4기본형도 소멸단계를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

e-교체열의 IV와 V의 두 하위부류는 제2기본형에 제2완전단계를 사용하는 점은 앞의 세 부류와 같다. 그러나 소멸단계의 사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IV급의 경우는 공명음이 있다. 인구어의 공명음인 비음이나 유음은 게르만어에서 해당 자음인 m/n, l/r를 생성하고 그 자음 앞이나 뒤에 모음(u)을 생성한다.

9) e-Gruppe 제3하위부류의 제3기본형과 제4기본형의 u는 인구어의 공명음에 속하는 유음과 비음이 게르만어에서 자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생성된 모음으로 e-Gruppe 제2하위부류의 제3기본형과 제4기본형의 u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10) 게르만어 초기에는 인구어의 자유형 강세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 in den übrigen Sprachen entwickeln sich vor oder hinter den Liquiden (Nasalen 저자 첨가) Vokale (im Germ. u), wobei sie selbst zu Konsonanten wurden.(Krahe, 1969: 55)

따라서 IV는 어간모음이 사라지더라도 어간모음 뒤에 나오는 공명음으로부터 u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어간음절의 존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V의 경우는 어간의 구성이 어간모음 + 자음이므로 어간모음이 소멸하면 어간 자체의 존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e-교체열에 남겨진 확장단계 ē가 동원된다. V의 경우 제4기본형에는 e-교체열-I, II, III과는 달리 제1기본형의 모음이 중복 사용된다. 한번 사용한 모음을 다시 사용하는 방법은 a-교체열의 특성이다. 꺾음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Die e-Gruppe hat deutlich drei oder vier alternierende Vokalismen, während die a-Gruppe nur zwei besitzt. Dies ergibt sich aus der Tatsache, dass das Präteritum der e-Gruppe eine interne Vokalalternanz nach Singular und Plural, das Präteritum der a-Gruppe dagegen den gleichen Vokalismus für den Singular und den Plural aufweist. (Coetsem, 1970: 405)

교체 가능한 모음의 수가 현격하게 적은 a-교체열은 단수과거와 복수과거를 구분해주지 못하고 동일한 모음을 사용한다. 이것에 유추하여 e-교체열-V도 제1기본형에 사용한 모음을 제4기본형에 다시 사용한 것이다.<sup>11)</sup>

김재명(1987: 63)은 e-교체열-IV의 제3기본형의 모음은 원칙대로 소멸단계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과거현재동사 Präteritopräsentia에서 찾고 있다.

Präs. Sg.	Präs. Pl.
*man-	*mun < *mŋ-
*skal-	*skul- < *skl

그러나 e-교체열-V의 제3기본형과 같이 확장단계를 사용하여 통일을 이룬다고

11) 모음을 중복 사용하는 이 방법은 7급동사에서도 요긴하게 사용된다.

주장한다 위 표에서 점선 위 부류의 어간은 V(okal) + R(esonanz) + K (onsonant)이고 아래 부류의 어간은 V + R/K이다. 이런 어간의 특성에 의한 분류로 인해 3기본형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위의 <표 3>에서 a-Gruppe의 점선 아래 두 하위부류는 제1기본형과 제4기본형에 제1완전단계를, 제2기본형과 제3기본형에 확장단계를 사용한다. 따라서 여기에 속하는 동사들은 a-ō 모음교체를 사용한다. 이 모음교체열을 사용하는 동사들을 강변화 6급 동사로 부른다.

<표 5> 강변화6급동사 4기본형의 어간모음

1.	2.	3.	4.
a + (Liq./Nas.)	ō	ō	a
a + (K.)	ō	ō	a

위의 <표 3>에서 a-Gruppe의 점선 위 세 하위부류 a-교체열-I, a-교체열-II, a-교체열-III의 어간 구성 특징은 a+ 공명음+ 자음이다. 이들은 제1기본형과 제4기본형에 제1완전단계를 사용한다. 그러나 제2기본형과 제3기본형에 교체하여 사용할 모음이 없다. 소멸단계를 사용하면 e-교체열-I, II, III의 제3, 4기본형에 사용된 어간모음과 같아지고 확장단계를 사용하면 6급동사의 ō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이들과 유사한 형편에 놓이는 동사들이 또 있으니 ē-교체열과 ö-교체열에 속하는 동사들이다. 이 두 교체열도 소멸단계를 사용하면 e-교체열의 제2기본형에 사용된 어간모음과 같아지고 확장단계를 사용하면 3모라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지닌 다섯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을 묶어 강변화 7급동사로 분류한다. 이 동사들은 모음교체에 동원할 모음이 없기 때문에 단수과거, 복수과거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들이 택한 해결책이 고트어에서 확인되는 중복법 Reduplikation이다. 강변화 7급동사의 4기본형은 다음과 같다.



<표 6> 고트어 강변화7급동사의 4기본형

1.	2.	3.	4.
a+i+K	Red.	Red.	a+i+K
a+u+K	Red.	Red.	a+u+K
a+Nas./Liq.	Red.	Red.	a+Nas./Liq.
ē	Red.	Red.	ē
ō	Red.	Red.	ō

### 3. 게르만어 중복법동사(강변화7급동사)

앞 2장에서 언급한 a-R- I, -II, -III에 속하는 동사와 ē-교체열과 ō-교체열에 속하는 동사를 일명 강변화 7급동사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그 시제 표현에 중복법을 사용한다. 에빙하우스 Ebbinghaus는 중복법동사 *reduplizierende Verba*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Die reduzierenden Verba bilden ihr Präteritum ohne Veränderung des Wurzelsvokals, nur durch Anfügung der Reduplikationssilbe. Diese besteht aus dem Anfangskonsonanten, verbunden mit dem konstanten Reduplikationsvokal ai (kurzes e), z.B. *haita* ich heiße, Prät. *haiheit*.... Beginnt das Wort mit zwei Konsonanten, so wird nur der erste wiederholt, z.B. *\*fraisā* ich versuche, *\*faifrais*... Die anlautenden Verbindungen *st*, *sk* jedoch ungetrennt wiederholt, z.B. *ga-stalda* ich erwerbe. *gastaistald*; *skaidan* ich scheidet, *afskaiskaid* ... Beginnt das Wort mit einem Vokal, so wird nur der Reduplikationsvokal vorgeschlagen, z.B. *\*auka* ich vermehre, *ana-aiak*. (Ebbinghaus, 1981: 115f)

중복법동사는 과거형을 구성할 때 어근모음의 교체를 이용하지 않고 중복음절을 붙여 구성한다. 중복음절은 어근의 첫 자음과 중복모음인 ai (단모음 e에 해당)로 만들어지는데 이 중복모음은 어떤 동사이나 공통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haita* ich heiße, Prät. *haiheit*.... 동사의 어간이 두개의 자음으로 시작하면 첫 자음만 사용한다. 예 *\*fraisā* ich versuche, *\*faifrais*... 그러나 초성에서의 자음결합 *st*, *sk*는 그 두 개의 자음을 모두 사용한다. 예 *ga-stalda* ich erwerbe. *gastaistald*; *skaidan* ich scheidet, *afskaiskaid* ...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는 중복음절에 자음 없이 중복모음만 사용한다. 예 *\*auka* ich vermehre, *ana-aiak*.

이러한 중복법동사의 형태는 고트어에 나타난다. 다음은 고트어에 나타난 중복법동사의 예이다.

<표 7> 고트어 중복법동사의 예

	1.	2.
A-R-I:	haitan 'heißen'	haihait
A-R-II:	*aukan 'vermehrēn'	*aiauk
A-R-III:	*falþan 'falten'	faifalþ
ē-R:	*slēpan 'schlafen'	saíslēp
ō-R:	*flōkan 'klagen'	*faiflōk

일부의 동사들은 중복법과 모음교체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ē-교체열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동사를 중복법-모음교체동사 reduplizierend-ablautende Verba라 부른다: \*lētān 'lassen'- lailōt; saian 'säen' - saísō<sup>12)</sup>(Ebbinghaus, 1981: 31.).

중복법동사와 중복법-모음교체동사를 편의상 중복법동사로 묶어 부르기로 한다. 중복법동사들은 고대고지독일어에서 순수동사를 제외하고 모두 모음교체동사로 복귀한다. 모음교체를 사용하는 강변화동사 중에서 예외에 속하던 중복법동사들이 대세인 모음교체동사로 복귀한 것이다.<sup>13)</sup> 그러나 7급동사 중에서도 주변영역에 속하는 순수동사는 나머지 중심부의 동사들과는 다른 변화를 겪는다. 다음 장에서는 고대고지독일어의 순수동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4. 고대고지독일어 순수동사

게르만어 ē와 ō는 각각 고대고지독일어의 ā와 uo가 되므로 고대고지독일어의 순수동사들은 다음과 같다<sup>14)</sup>:

12) 고트어에서 닫힌 모음 ē는 모음 앞에서 열린 모음 ē가 되었고 ai로 표기된다.

13) 강변화7급동사 과거형 모음에 대해서는 김재명(1987), 김희자(1982)을 참조 바람.

14) 고대고지독일어의 순수동사에는 그 밖에도 a-교체열-II에 속하는 būan 'bauen, wohnen'

germ. ē-R ; bāen 'bähen', blāen 'blähen', drāen 'drehen', knāen 'kennen', krāen 'krähen', māen 'mähen', nāen 'nähen', sāen 'säen', tāen 'säugen', wāen 'wachen'.  
 germ. ô-R; bluoen 'blühen'. druosen 'leiden', gluoen 'glühen', gruoen 'wachsen',  
 (h)luoen 'brüllen', möen/muoen 'mühen', spruoen 'gelingen'. (Braune/Mitzka, 1967: 293)

순수동사가 고대고지독일어에 남긴 강변화동사의 흔적은 얼마 되지 않는다:

- (1) ziplahanner (Pariser Hs. des Keronischen Glossars: freising ca.740?)
- (2) ziplaner (Reichenauer Fassung des Keron. Glossars: um 800)
- (3) inblāhenenen (Notkers Werke) (Baesecke, 1918: 217; Matzel, 1987a: 41)

고대고지독일어에서 b와 p는 서로 교체관계에 있으며 (1), (3)의 h는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해 삽입된 자음이다. 따라서 세 가지 예의 기본이 되는 동사는 blāen이며 각 형태는 강변화 과거분사형의 어미변화한 형태이다. 이와 같이 고대고지독일어에서 순수동사의 강변화동사의 흔적은 매우 희귀한데 그것도 과거분사형뿐이고 과거형의 전거는 전무하다(Matzel, 1987b: 80; Riecke, 1996: 145).

순수동사들은 고대고지독일어에서 모두 약변화동사에 속한다. 강변화동사의 각 급 간에, 또는 강변화와 약변화 사이에 개별 동사들이 그 소속을 변경하는 예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속된 구성원 전체가 이동하는 예는 그리 흔치 않다. 리케 Riecke의 표현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Der geschlossene Übertritt der verba pura zur schwachen Flexion ist in der Sprachgeschichte des Germanischen ein einmaliger Vorgang. (Riecke, 1996: 149)

그러면 언어사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순수동사의 약변화로의 대거 이

---

과 e-교체열-II에 속하는 nūan 'zerreiben'이 있다. 전자는 고대고지독일어에서 이미 약변화로 이행하였으며(Braune/Mitzka, 1967, 288), 후자는 중세고지독일어에서 약변화로 이동하였다(Braune/Mitzka, 1967, 277). 본 논문은 게르만어 ē-교체열과 ô-교체열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두 동사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동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이미 2장과 3장을 통해 보았듯이 순수동사 구조가 강변화동사 체계 안에서 일으키는 문제에서 기인한다. 강변화로써 시제 표현에 사용할 교체모음을 갖지 못한 점은 7급동사 모두가 갖는 공통된 약점이다. 게다가 열린음절의 어간을 소유하였다는 특성은 순수동사들이 또 한 차례의 변화를 겪어 약변화 1급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면 순수동사들이 약변화로 이동하는 과정을 추론해 보기로 하자.

순수동사가 고대고지독일어에서 약변화 1급에 속한다는 사실에 이론을 제기하는 학자는 없다. 따라서 순수동사의 게르만어 부정형을 재구할 때 *-jan* 동사의 형태로 재구한다: 예를 들면 \**knējan* '(er)kennen'; ahd. *knāen*. 약변화 1급 동사는 제2차동사로서 파생동사이다. 특히 파생 후철 *-ja-*를 사용하는 동사로 일명 *-jan*동사로 불린다.<sup>15)</sup> 그렇다면 실제로 고대고지독일어나 그 이전의 현재 형태에 *-j-*가 존재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원래의 약변화 1급동사들 중에서 단음절 *Kurzsilbe* 어간을 가진 동사들은 어간말음의 자음중첩 *Gemination*을 통해 과거에 *-j-*가 존재했음을 증거한다: *dennen* 'dehnen' - *denita*. 어간의 중자음으로 인해 장음절 어간을 가지게 된 동사들은 소위 역행변모음 *Rückumlaut*를 통해 이전의 *-j-*의 존재를 증명한다: *stellen* 'stellen' - *stalta*. 그러나 순수동사들은 어간을 닫는 자음도 없고, 변모음의 대상이 되는 어간모음도 없기 때문에 *-j-*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다.

부라우네/미쯔카 *Braune/Mitzka*는 고대고지독일어에서 약변화 1급으로 이동한 순수동사들의 현재형에 삽입된 *-j-*는 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In den Verba pura auf *ā* und *uo*, die früher stark (red.) flektierten, im Ahd. aber zu den schw. V. I übertraten, ist das *j* teils von den schw. V. übernommen, teils lautlich entwickelt. Übrigens wird das *j* bei diesen Verben erst späthd. und mhd. häufiger: früher sind die Formen ohne *j* die normalen, wie überhaupt Formen ohne Übergangskonsonant (*w, j, h, g < j*) während der ganzen ahd. Zeit gelten. (Braune/Mitzka, 1967: 107)

15) 약변화 1급의 파생 종류에는 동사파생 *Kausativa*, 명사파생, 형용사파생 *Faktivita*, 부사파생 등이 있다. J. Riecke, S. 59 참조.

즉 과거에 강변화(중복법)동사이었으나 고대고지독일어에서 약변화1급동사로 이동한, 어간이 *a* 또는 *uo*로 끝나는 순수동사에 들어 있는 *-j*의 성격을 보면 일부는 약변화동사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일부는 음운환경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이러한 동사들에 나타나는 *j*는 고대고지독일어 후대와 중세고지독일어에 이르러서야 그 빈도가 높아질 뿐이고 전이음 성격의 자음(*w*, *j*, *h*, *g*<*j*)을 가지지 않은 형태가 전체 고대고지독일어 시대에 통용된다고 말한다.

밤메스베르거 Bammesberger는 강변화 6급의 *-ja*-동사의 *urgerm. \*arjan*을 재구하기 위해 *got. arjan*, *an. erja*, *ae. erian*, *afr. era*, *ahd. erien*, *erren*을 근거로 사용한다(1991: 22). 즉 고트어와 고대북구어에 *-j*가 남아 있으며 고대영어 고대고지독일어에 *-i*가 남아 이전의 *-j*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arjan*과 같은 방법으로 순수동사인 *\*sējan*을 개별언어 형태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크루게 Kluge에 의하면 *germ. \*sējan*의 개별언어 형태는 *got. saian*, *an. sā*, *ae. sāwan*, *afr. Part. sēn*, *ahd. sāwen*, *sā(j)en*이다(Kluge 1975: 619). 이 자료는 *\*arjan*의 경우와는 달리 *\*sējan*을 재구하기에는 불충분하다. *j*의 존재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트어 형태이다. 그러나 *got. saian*의 *-ai-*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에빙하우스 Ebbinghaus는 고트어에서 *ē* 대신 *ai*가 사용된다고 한다(1981: 117). 이 *ai*에 대해 브라우네 Braune는 *got. \*sēan*의 폐모음 *der geschlossene ē*가 모음 앞에서 개모음 *der offend ē*가 되고 이 개모음을 *ai*로 표기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헬름 Helm은 *-j*-를 가진 *germ. \*sējan*에서 고트어 형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 즉 *-ēj-*가 모음 앞에서 *ai*로 단축되었다는 것이다(Ebbinghaus 1981, 31에서 재인용). 고트어의 전거에 *-j*는 산발적으로 현재형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3인칭 단수형태에 *saiiþ* 외에 *saijib*도 있다. 그러나 전이음 성격의 *-j*가 두 개의 *i* 사이에 삽입되는 예가 외래어 이름에 나타난다. *Beþanijin*(Ebbinghaus 1981, 45). 결국 *-j*-를 내포한 *sējan*이 존재했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베쾨케 Baesecke는 *-j*- 존재에 대한 증거로 고대고지독일어의 형태 *nāio*, *wāie*, *wāiet*, *bluoient*, *bluoie*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j*-의 후신인 *-i-*를 가진 형태들이 오래된 문헌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 *wāenti*나 *grōentēm* 속의 *-e-*가 *ja*(*<ja*) >*e* >*e*라는 주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e-*는 *-ja-*로부터만 유래하지 않고 *ē* 혹은 *i*로부

터 유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주장의 근거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첵케는 -j-를 반모음 성격의 파생 후철의 -jan-의 것으로 보지 않고 전이음 Übergangslaute 성격의 마찰음으로 본다(1918: 231).

목찌겔바 Moczygamba는 -j-의 존재를 시인한다(1958: 273).

... der ursprünglich vokalisch schließenden Wurzel wurden westgermanisch bald ein -j oder -w angefügt."

그러나 -j-또는 -w-가 삽입된다는 설명을 보면 이것도 전이음 성격의 -j-임을 알 수 있다.

고대고지독일어에서 어간모음과 어미모음 사이의 모음충돌 Hiatus을 제거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는 전이음 성격의 자음 삽입에 대해서 부라우네/미츠키 Braune/Mitzka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전이음으로는 주로 h가 삽입되나 그 외에도 j나 g 또는 드물게 w가 삽입된다고 한다. 특히 순수동사의 현재형 어간에 전이음이 삽입되는 현상은 방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제일 먼저 8세기 경 바이에른방언 bairisch에 h가 등장하나 초기 알레만방언 alemanisch 에는 나타나지 않는다(Braune/ Mitzka, 1967: 143). 순수동사에 드물게 삽입되는 w는 주로 동프랑크어 ostfränkisch에 나타난다(Braune/ Mitzka, 1967: 103).

현재형에 원래 i(<j)가 없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증거가 과거분사의 어미변화하지 않은 형태이다: biknāt, gimuot(Baesecke, 1918: 232). 원래의 약변화 1급동사의 어미변화하지 않은 과거분사형태는 i(<j)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gisuochit, gizelit, ginerit(Braune/Mitzka, 1967: 264-265 중간의 도표).

마젤은 린데만F. O. Lindemann과 마이트W. Meid의 견해를 따라 순수동사의 현재형을 -j- 현재형(< vorurgerm. \*-ie/o-)으로 잡았다(Matzel, 1987a: 151). 그리고 개별언어의 전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germ. \*blējan, mhd. bloejen 'blöken' und aksl. blějō, blējati 'blöken', lett. blēju, blēt 'blöken;

germ. \*dējan, ahd. tāen 'saugen' und lett. dēju, dēt und arm. die- '(Milch) saugen';

germ. \*mōjan, ahd. muoen 'quälen' und russ. máju, májatb 'ermüden';  
 germ. \*sējan, ahd. säen 'säen' und aksl. sějō, sējati, lit. sėjū, sėti;  
 germ. \*wējan, ahd. wäen 'wehen' und aksl. vějo, vějati. (Matzel, 1987a: 185)

germ. \*blējan은 고대고지독어의 전거는 없고 중세고지독어에 비로소 나타나는 동사로서 슬라브어와, 발트어의 일종인 라트비아어에 그에 상응하는 형태가 있을 뿐이다. germ. \*dējan은 라트비아어와 아르메니아어에, germ. \*mōjan은 러시아어에, germ. \*sējan은 슬라브어와 발트어의 일종인 리투아니아어에, germ. \*wējan은 슬라브어에 그에 상응하는 형태를 가진다. 결국 아르메니아어를 제외하면 모두 인구어 중에서도 슬라브어와 발트어에서만 -j-를 가진 형태의 전거를 소유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 두 어족은 게르만어와 그 친족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순수동사가 약변화로 이동한 것은 일차적으로 -jan 동사가 되고 그래서 약변화하였다고 보다는 다른 데서 그 단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베제커는 -j-에서 유래한 -i- 때문에 순수동사가 약변화동사가 된 것이 아니고 강변화동사의 현재형 어미가 약변화1급 어미와 많은 부분 일치할 뿐더러 특히 약변화 2급 및 3급의 현재형 어미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Nicht die i haben also den Übertritt dieser Verba in die erste sw. Konjugation verursacht. Der war vielmehr, wenn sie überhaupt schwach wurden, durch die weitgehende Übereinstimmung der präsentischen Endungen und ihren Gegensatz zu denen der sw.V. II und III gegeben. (Baesecke, 1918: 232)

고대고지독일어의 강변화동사와 약변화1, 2, 3급 동사의 현재인칭어미(직설법)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lt;표 8&gt; 고대고지독일어 현재인칭변화(직설법)

	st.	sw. I	sw. II	sw. III
Sg.	1. nimu	zellu	salbōm	habēm
	2. nimis	zelis	salbōs	habēs
	3. nimit	zefit	salbōt	habēt
Pl.	1. nemumēs	zellemēs	salbōmes	habēmēs
	2. nemet	zellet	salbōt	habēt
	3. nemant	zellent	salbōnt	habēnt

따라서 *-j-*현재형이 아니더라도 어미체계 자체가 약변화1급동사와 아무런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수동사들이 약변화1급동사로 편입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순수동사의 과거형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자. 순수동사의 과거형태는 약변화1급의 장음절어간동사의 과거형과 일치한다: *hören* ‘hören’ - *hörta*; *sāen* - *sāta*. 그러나 다른 강변화 7급동사, 다시 말하면 중복법동사들은 고대고지독일어에서  $\bar{e}^2$ (>ea/ia/ie)와 복모음 eu(>eu/io/ie)를 사용하여 모음교체동사로 복귀한다.<sup>16)</sup> 그렇다면 고대고지독일어에서 순수동사도  $\bar{e}^2$ /eu를 사용하여 다른 중복법동사와 같이 시제변화에 모음교체를 사용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물음에 대해 마젤 Matzel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순수동사들이 다른 중복법동사들과 같이 새로운 모음  $\bar{e}^2$ 나 eu를 가지고 과거형을 구성하였을 때 동사 인칭어미를 붙인 형태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1. Sgl. *hē <sup>2</sup> t	ahd. hiaz	: vorahd. *K(K) $\bar{e}^2$	ahd. K(K)ia
2. Sgl. *hē <sup>2</sup> ti	ahd. hiazi	: vorahd. *K(K) $\bar{e}^2$ i	ahd. K(K)iai
3. Sgl. *hē <sup>2</sup> t	ahd. hiaz	: vorahd. *K(K) $\bar{e}^2$	ahd. K(K)ia
1. Plur. *hē <sup>2</sup> tum	ahd. hiazum	: vorahd. *K(K) $\bar{e}^2$ um	ahd. K(K)iaum
1. Plur. *hē <sup>2</sup> tud	ahd. hiazut	: vorahd. *K(K) $\bar{e}^2$ ud	ahd. K(K)iaut
1. Plur. *hē <sup>2</sup> tun	ahd. hiazun	: vorahd. *K(K) $\bar{e}^2$ un	ahd. K(K)iaun

16)  $\bar{e}^2$ 는 게르만어에서 갑자기 생겨난 모음으로 7급동사의 과거형에 주로 사용된다. 이에 상응하여  $\bar{o}^2$ 의 존재를 가정하기도 한다. 김희자, 1982: 54 참조.



## &lt;표 9&gt; 모음교체동사로 가정해 본 순수동사의 형태

- |                                  |  |
|----------------------------------|--|
| 1. Sgl. *hleup ahd. (h)liof      | : vorahd. *K(K)eu ahd. K(K)io                    |
| 2. Sgl. *hleupi ahd. (h)liofi    | : vorahd. *K(K)euī ahd. K(K)ioi                  |
| 3. Sgl. *hleup ahd. (h)liof      | : vorahd. *K(K)eu ahd. K(K)io                    |
| 1. Plur. *hleupum ahd. (h)liofum | : vorahd. *K(K)euum ahd. K(K)ioum                |
| 2. Plur. *hleupuđ ahd. (h)liofut | : vorahd. *K(K)euuđ ahd. K(K)iuot                |
| 3. Plur. *hleupun ahd. (h)liofun | : vorahd. *K(K)euun ahd. K(K)iuon <sup>17)</sup> |

위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중법복동사들과는 달리 순수동사의 어간은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충돌(Zusammenstoß von vokalisch auslautender Wurzel und vokalisch anlautender Flexionsendung)”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수동사는 고대고지독일어에서 치음을 가진 후철을 사용하는 약변화 과거형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Matzel 1987a, 57). 이 설명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 특히 게르만어의 3-모라-법칙을 감안하면 이해가 더 잘 된다. 참고로 고대영어에서는 다른 중법복동사들뿐만 아니라 순수동사까지 모음교체동사로 복귀한다. 순수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 어간에 w가 삽입되어, 비순수동사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어 모음교체동사에 합류한 것이다(Matzel 1987a, 39; Sievers 1951, 339). 고대영어에서 w는 “자음 기능을 가지는 in konsonantischer Funktion” 반모음 u다(Sievers 149). 이것은 순수동사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자음 w가 된다. 이 w의 유래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Matzel 1987a, 40, Anm. 78) 고대고지독일어의 경우와 같이 전이음 성격의 삽입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대영어에서는 어간모음과 어미모음 사이에 삽입된 전이음이 자음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것도 현재형뿐만 아니라 과거형에도 삽입되어, 전래의 순수동사가 비순수동사의 형태를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고대고지독일어의 경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이음 성격의 자음의 삽입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그것도 삽입이 될 경우 현재형에만 삽입되어, 순수동사의 형태상의 특성을 제거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

17) K는 Konsonant의 약자임.

## 5. 결론

게르만어 순수동사는 원래 강변화 7급동사에 속하였다. 강변화 7급동사에는 a음 교체열 중에서 I, II, III 즉 어간모음 a 다음에 <공명음+자음>이 오는 계열의 동사와 ē-와 ö-음 교체열의 동사가 속한다. 이들 중에서 ē-와 ö-음 교체열에 속하는 동사 중에서 그 어간이 자음으로 닫히지 않고 열린음절에 속하는 순수동사는 강변화동사로 남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닌 동사들이다. 우선 7급동사들의 공통된 문제는 시제 표현에 사용할 교체모음이 없다는 점이다. 게르만 초기에는 이 문제를 반복법을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그러나 개별언어 시대인 고대고지독일어에서는 어간음절이 다음절이라는 예외 Ausnahme를 벗어나 버리고, 모음교체동사인 강변화로 복귀하지만 순수동사만은 약변화1급으로 이동한다.

순수동사들이 약변화 1급으로 이동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 현재형이 약변화 1급동사인 -jan-동사로 이동하고 이에 맞추어 과거형도 치음후철을 사용하는 과거형을 구성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현재형의 -j-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형은 강변화와 약변화의 현재형 어미가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약변화 2, 3급과는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순수동사들이 자연스럽게 약변화 1급에 편입될 수 있었다.

과거형은 과거형대로 치음후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어간음절이 장음이라는 점과 어간이 닫히지 않고 열렸다는 점 등이 7급동사의 나머지 다른 동사들처럼 강변화로 편입되는 것을 막은 것이다. 현재형과 과거형은 따로따로 약변화1급동사 체계로의 편입이 진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함께 약변화1급동사로 이동해 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재명 (1987): 게르만語 強變化動詞 7級에 나타난 두 가지 過去形態에 대한 考察. 강원대학교 논문집 인문학연구 Vol. 25. S. 58-86.  
 김희자 (1981): 獨逸語 強變化 7級動詞 體系變遷의 歷史的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aesecke, Georg (1918): *Einführung in das Althochdeutsche*.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Oskar Beck. München.
- Bammesberger, Alfred (1986): *Der Aufbau des germanischen Verbalsystems*. Carl Winter Universitätsverlag. Heidelberg.
- Bammesberger, Alfred (1991): Das Präteritum der Verba pura und ahd. ier-/eor-/er-. In: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und Literatur*. 113, 22-27.
- Braune, Wilhelm/ Mitzka, Walther (1967): *Althochdeutsche Grammatik*.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 Coetsem, Frans van (1970): Zur Frage der internen Ordnung der Ablautsalternanzen im Voreinzeldialekten. in: *Vorschläge für eine strukturelle Grammatik des Deutschen*.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385-413.
- Ebbinghaus, Ernst A. (1981): *Gotische Grammatik*.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 Krahe, Hans (1969): *Germanische Sprachwissenschaft*. Sammlung Göschen Band 238.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 Kluge, Friedrich (1975):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21. Aufl.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 Matzel, Klaus (1987a): Zu den verba pura des Germanischen, I. Teil in: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Sprachforschung* 100, 146-203 (재수록 in *Gesammelte Schriften* (1990). Carl winter Universitätsverlag, Heidelberg. 10-67.)
- Matzel, Klaus (1987b): Zu den verba pura des Germanischen, II. Teil: Der Sonderstatus der verba pura des Althochdeutschen. In: *Althochdeutsch*. Band I, Carl Winter Verlag. Heidelberg, 214-234. (재수록 in *Gesammelte Schriften* (1990). Carl winter Universitätsverlag. Heidelberg, 68-88.)
- Matzel, Klaus (1988): The Origin of the Dental Preterit of the verba pura in D.G.Calder and T.Craig Christy (Ed.). *Germania. Comparative Studies in the old German Languages and Literatures*. Brewer. Woodbridge/Suffolk, 29-44 (재수록 *Gesammelte Schriften* (1990). Carl winter Universitätsverlag. Heidelberg, 89-104.)
- Matzel, Klaus (1990): Zum System der starken Verben des Germanischen. In: J. Tilakasiri (hg.). *Anjali*. O.H. de A. Wijeskera Felicitation Volume. Peradenija, 172-181.

- Moczygmba, Gustav (1959): *Das Germanische Verbalsystem*. Verlag des Verfassers. Füstenfeld.
- Mottausch, Karl-Heinz (1964): Zur Geschichte des germanischen starken Verbums im Färöischen. In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Sprachforschung auf dem Gebiete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Göttingen. Vadsenhoeck & Ruprecht. Band 79. 1./2. Heft, 48-54.
- Paul/Moser/Schröbler (1969): *Mittelhochdeutsche Grammatik*.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 Riecke, Jörg (1996): *Die schwachen jan-Verben des Althochdeutschen*. Göttingen.
- Sievers, Eduard (1951): *Altenglische Grammatik*. Max Niemeyer Verlag. Halle.
- Streitberg, Wilhelm (1974): *Urgermanische Grammatik*. Carl Winter Universitätsverlag. Heidelberg.
- Theoblod, Elke (1992): *Sprachwandel bei deutschen Verben*.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 Zusammenfassung

### Verba pura des Germanischen

Kim, Hui-Cha(Soonchunhyang Univ.)

Die sogenannten verba pura bilden eine Teilmenge der germanischen starken Verben der VII. Klasse. Sie sind auf einsilbige langvokalisch auslautende Wurzeln des Vorurgermanischen zurückzuführen: z. B. \*knēan 'erkennen', \*mēan 'mähen', \*blōan 'blühen', \*mōan 'quählen'. Um den Begriff der verba pura genau zu erklären, stellt man diesen Verben die sogenannten verba impura gegenüber, bei denen auf die lang Wurzelvokale urgerm. \*-ē- und \*-ō- ein Konsonant folgt: z. B. urgerm. \*lētān (got. letan) 'lassen', \*hwōpan (got. hvopan) 'sich rühmen'.

Die germanischen starken Verben der VII. Klasse hat die stärksten Umgestaltungen mitgemacht, und zwar die verba pura noch mehr. In diesem Aufsatz untersuchte ich die Gründe ihrer Umgestaltungen im germanischen Verbalsystem. Danach wird der Vorgang erschlossen, wie die verba pura in Ahd. zu den schwachen Verben I übertraten. Dabei werden die folgenden Punkte besonders behandelt: Hatten die frühzeitigen Präsensformen der

verba pura -i-, das aus -jan herausgeht? Wenn nein, wie haben die verba pura zur schwachen Flexion übertraten? Warum konnten die verba pura wie die anderen reduplizierenden Verben in Ahd. nicht zu ablautenden Verben übergehen?

[검색어] 순수동사, 중복법동사, 강변화동사  
verba pura, reduplizierende Verben, starke Verben,

김희자

336-745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어문학부 독어독문학전공

kimhch@sch.ac.kr